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혁시기 베이징에서의
사생(師生)관계를 통해서
본 인적네트워크 파괴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희 숙

문혁시기 베이징에서의
사생(師生)관계를 통해서
본 인적네트워크 파괴

임 상 범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0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희 숙

인준서

김희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문화대혁명은 10년(1966년~1976)동안 중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문화대혁명에 등장한 홍위병의 등장을 통해서 학교라는 공간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로 확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당대 중국 사회의 '개인과 개인'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 확인하겠다.

신 중국이 수립되고 중국공산당은 교육 인프라를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의 정상화는 교사의 수급 문제와 직결되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기존의 교사들을 재교육시켜 배치하는 방법과 사범학교 성립을 통한 교사 배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초창기 교사들은 대부분 구교사들로 학교에 배치되었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학교를 구교사들이 장악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짙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사상투쟁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이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모순은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홍위병이라는 극좌사상으로 변화된다.

또한 이는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가중되었다. 공적인 관계의 기본단위인 학교는 문화대혁명 동안 파괴되어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느새 투쟁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또한 동지였던 학생과 학생의 관계도 비투의 상대가 되었다. 이처럼 문화대혁명은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마저도 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렇다면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 사회는 제대로 치유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은 새로운 중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이는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봉합된 현대 중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감췄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현대 중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의 파괴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학교로 돌아온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와 그에 반해 문화대혁명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적극적이지 못한 교사로 나뉘진다.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홍위병으로 활동한 자들은 최고의 시기로 혹은 최악의 시기로 회상한다.

파괴된 인간관계는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종결 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상처가 보이지 않게 봉합만 된 상태는 당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쳤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마저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던 문화대혁명을 겪은 '보통사람'들의 '나와 너'가 분리된 삶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홍위병에 대한 연구 자료는 아직 일부분만 공개된 상황이다. 그래서 필자는 소설, 자서전 등을 이용해서 중국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재해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등장한 상흔문학은 당시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서론	1
I. 교육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	7
II.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18
1. 교사들의 시선	18
2. 학생들의 시선	25
III. 문화대혁명 이후 사생관계의 변화	31
결론	36

참고문헌

<中文概要>

서론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와 1966년 8월 중공 8차 11중 전회의 개최부터 시작하여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6년 10월 6일 중공중앙 정치국이 '4인방'(江青,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을 심대한 다음날 중앙정치국이 화궈펑(華國峰)을 중공중앙주석 겸 중공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중국 현대사에서 '잊고 싶은 과거이자, 잊혀지기 바라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또한 이 동란이 낳은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다수 중국인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살아남은 희생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문화대혁명이 남긴 정신적 충격은 그 이후 덩샤오핑 시대까지 모든 중국인의 정치적 관심과 의식형태를 형성했다.¹⁾ 이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21세기를 한참 지난 당대 중국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10년 동란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현상의 하나는 홍위병 일 것이다. 홍위병은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신격화를 위해 "문화대혁명"에서 일어난 특수 작용으로 정치적인 전제에 입각해서 성립되어,²⁾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중국 전역을 붉게 물들였다. 이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단체로 시작되었다. 홍위병이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청화대학부속중학교였다. 1966년 5월 29일 밤 이 학교 학생들 십여 명은 원명원(圓明園) 유지에 모여 소련에서 조직되었던 '청년 근위군'을 모방하여 홍위병을 조직하였다. 이

1)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04, p.506.

2) 高阜, 嚴家其 지음, 『“文化大革命”十年史』, 天津人民出版社, 1989, p.40.

명칭은 이들이 서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서, 그 뜻은 당과 마오주석을 보위한다는 의미였다.³⁾ 홍위병은 정치적인 이유로 3년 뒤 하방(下放)되면서 용도 폐기되었지만, 이 단체가 동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강렬함은 지금도 여전히 흥미로운 연구 소재이다.⁴⁾

필자는 문화대혁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벌어졌던 무력 행동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홍위병들이 중요한 일상생활 공간이었던 학교에서 관계를 맺고 있던 교사와 학생,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었기에 홍위병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투(批鬥)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홍위병이 되기 위한 출신성분의 제약에서 보여지 듯이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도 존재했다.

나아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 이들이 서로 사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으로 야기된 상처들을 가지고 ‘교사는 다시 교사로, 학생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왔을 때, 모순은 사라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감춰졌을 뿐이었다. 그래서 감춰진 모순을 가지고 돌아온 학교에서 이들의 생활과 생각에서 보여지는 변화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자,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49년 9월 12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신(新)중국 건국 초기의 교육 방침이 천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교육은 신민주주의⁵⁾에 의거해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교육을 이룬다. 인민정부의 문화 교육 공작은 인민의 문화 수준을 고려해서 국가 건설의 인재를 양성하고 봉건적, 매판적, 파시즘 사상을 숙청하

3) 김재선 지음, 『모택동과 문화대혁명』, 한국학술정보, 2009, p.105.

4) 安致穎,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 현대중국연구 제8집 2호, pp.7-8.

현재까지 문혁시기 자료의 공식적인 자료의 공식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과 檔案法實施辦法에 의하면 檔案자료는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국가이익과 관련된 것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혁 관련 檔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5) 마오쩌둥 지음, 『신민주주의론』, 출판사 解放 제98-99호, 1940,

여서 인민을 위해 근무하는 사상의 발전이 중요한 임무이다.”⁶⁾

이러한 교육 방침은 공산당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인민’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이는 곧 중국 교육이 줄곧 정치에 예속되어 학문으로서 전문화를 이룩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1951년 10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은 《학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여 각급 각류(各類)의 학교의 학제 구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舊)학교의 개조가 실시되었다.⁸⁾

동시에 학교에 교육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교육계의 인력들을 사상개조(思想改造)한 뒤에 다시 기용했다. “구(舊)사회에서 일했던 수백만 지식분자들은 현재 신(新)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들이 신(新)사회에 알맞게 존재하도록 적응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신(新)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가이다.”⁹⁾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사상개조와 자아비판 등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교수와 지식인들을 사회에 필요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정자본주의의 잠재적인 맹아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대학교수, 중학 교원, 소학 교원이 없다. 따라서 전부 국민당의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계를 통치하고 있다”¹⁰⁾ 라고 말하면서 교육 혁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6)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79 (우).

7)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79 (우).

8) 이 학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노동인민을 지식분자로 빠르게 양성함으로써 각종 형식의 간부학교를 보충학교와 훈련반의 지위로 확정했다. 2. 중등전업학교(사범학교 포함), 비전문중학과 비전문초등학교의 요구를 확정했다. 3. 소학의 전수연령, 4·2제를 5년 일괄제(1953년 11월 정무원에서 시에 지시하여 발표, 5년 일괄제 추진이 정지되고, 4·2제 연용해 따르다.)로 바꾸고, 입학연령을 7세로 했다. 4. 고등학교 학제를 다양화했다. 대학과 전문 학원 수업 연한은 1~2년으로 했다.”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p.79~80.

9)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38.

한편 재교육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교수와 대학에 남아서 학문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였다. 공산당에 속했던 신진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돌아온 교육자들은 지식 면에서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상적인 면에서는 감시해야 할 인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혁 이전에 대학 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스승과 제자, 학생 간 내부 모순 외에도 연구자 내부에서도 청·노년 학자 사이의 모순, 청년학자 내부 모순, 그리고 노년학자 내부모순 등이 존재했다.¹¹⁾

이러한 관계는 중학교에도 존재했다. 당시 정부는 ‘존사애생(尊師愛生)’이라는 기치 하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정의하고 교사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교사가 학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시기에 사상개조를 통해서 돌아온 구(舊)교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존에 가르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이며, 반면 학생들은 사상개조를 받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그다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조급한 반발에 부끄러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했을 것이다.¹²⁾

결국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중국이라 거대 사회의 ‘사람과 사람’ 관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을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는가?’라는 문제는 당시 중국 사회를 인식하는 유효한 통로의 하나가

10) 李鏡, 『李鏡論說文選』,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p.176.

11) 왕원주, 「학내모순과 문화대혁명의 사회적요인 : ‘문혁’ 이전 대학 내 역사학 연구자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2, p.102.

12) ‘이는 내가 학생만도 못하다.’ -永寧中學教師 石建端

후유선 동학의 일기 중에 쓰여진 걸 말하면: “오늘 나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석 선생은 내가 제출한 것에 대해 엄격한 비평을 하였다. 선생님의 노여움은 매우 컸고 문제없는 것들도 바로 나에게 비평하여서 나를 매우 슬프게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그는 또한 선의에서도 화를 냈다. 그러므로 나도 그의 태도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 이 일기를 보고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비교해서 말하면, 이는 내가 학생만도 못하고 내가 당연히 교사 티를 내버리지 않으면 겸허히 학생을 향해서 학습할 수 있을까? 《北京日報》 66. 3. 18 (금) 2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학생들의 태도와 교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문화대혁명을 다시 생각해보고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짚어보면서, 학교에 가해진 거대한 충격을 홍위병이라는 집단 속의 개인을 끄집어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사상을 통해서 연구할 것이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자료모음으로는 2002년 ‘홍콩 중문대학 중국연구 복무중심’에서 『중국문화대혁명문헌(中國文化大革命文獻)』 CD를 들 수 있다.¹³⁾ 한편 본 연구의 주제인 홍위병에 대한 연구 자료로는 공식적인 자료보다 회고록 등이 많이 사용된다.¹⁴⁾ 그것은 아직 공식자료의 공개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인 국내 논문으로는 안치영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2002), 전인갑의 「근현대사 속의 문화대혁명」(2005) 등이 있으며 본고의 작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편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국 교육사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¹⁵⁾ 이후 국내에서도 중국 교육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안경식의 「20세기 중국교육사학의 이해」(2002), 李濤의 「중국교육사 연구 고조 100년의 회고와 반성」(2010), 박영진의 「중국의 학원제 개혁과정의 연구」(2008) 등을 참고하였다.

본고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집단 속의 개인을 보기 위한 자료로 주로 소설과 자서전 등을 선택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소설 창작은 기본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의 역사·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인방이 몰락한 후 맨 처음 등장

13) 안치영,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 현대중국연구 제8집 2호, p.11.

14) 회고록으로는 季羨林, 『우봉잡역』(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8)와 石肖岩 周偏, 『北大荒風雲錄』(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0) 등이 있다.

15) 안경식, 「20세기 중국교육사학의 이해」, 『중국교육연구』, 2002, p.1.

한 것은 이른바 ‘상흔문학’이었다. 상흔문학은 문화대혁명의 극좌노선이 중국인민에게 끼친 육체적·정신적 해악과 상처를 되돌아본 문학이다.(강조) 상흔문학의 대표작으로는 류신우의 <담임선생님>, 루신화의 <상흔>, 저우커친의 《쉬마오와 그의 딸들》 등을 들 수 있다. 상흔문학에 이어 창작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 것은 뒤돌아보기 문학이었다. 뒤돌아보기 문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의 역사에서 극좌 사조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흔문학의 연장이자 보충이라 할 수 있다.¹⁶⁾

당시 소설은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뒤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매체로 그 당시를 겪은 작가들은 당시의 문제와 폐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서전은 자신이 겪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그 안에 국가,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대립과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은 개인이 문화대혁명이란 거대한 역사적 조류에서 살아남아 현재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려준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상흔문학과 신생대문학 등 문화대혁명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혹은 자서전에 쓰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2006, pp.166~167.

I. 교육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

1949년 10월 新중국을 건립한 중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빠르게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하였다. 본 장에서는 신(新)중국 성립과 함께 제시되었던 중등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과 상황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겠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뒤 이루어진 중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1951년 3월 제출된 아래의 문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제1차 전국 중등 교육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보통 중학은 청년들이 지육, 덕육, 체육, 예술 교육을 통해서 각 방면에서 고른 발전을 이루어 신민주주의사회를 이룩한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교육부는 1952년 3월에 《중학 잠행규정(中學暫行規程)(초안)》을 공포했다. 《규정(規程)》에 나타난 중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학생들에게 자국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고 현대과학의 기초 지식과 기능을 파악하게 해서 과학적 세계관을 기르게 한다. (2) 학생들은 조국에 충성하며 인민 봉사 사상, 조국애 양성, 인민 · 노동 · 과학을 사랑하고, 공공 재물을 애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중도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킨다. (3) 학생들은 체력단련과 위생적인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육성한다. (4) 학생의 심미관을 수양하고, 그 예술적 창조능력을 계발한다.¹⁷⁾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교부에서는 사범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을 만들었다. 1953~1955년 동안에 학습하였던 소련의 교육 이론

17)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147.

과 교학 경험을 중학의 실질적인 상황과 결합시켜, 고등사범학교의 어문, 역사, 정치교육, 교육,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체육 10개의 전문적 교학 계획을 제정하였다.¹⁸⁾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러한 교과 교육만으로는 인민공화국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교육과 노동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1958년 2월, 교육부는 베이징 등 성시(城市) 교육청, 국책임자들이 참가하는 근공검학(勤工儉學 : 일하면서 배우자) 좌담회를 소집하였다. 각 급 교육 행정부문과 학교에 적극성이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서 관습을 타파하여 근공검학(勤工儉學 : 일하면서 배우자), 반공반독의 활동을 전개하기를 요구하였다.¹⁹⁾

우선 마오쩌둥은 1958년 1월 《공작방법(초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대학교와 성시 안의 중등학교가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몇 개의 학교들이 연합해서 부속 공장 혹은 수공업 작업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장과 함께 공지 혹은 직업에 근무하도록 참가하는 노동 계약을 맺는다.”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 중, 소학은 당연히 부속 농장을 설립하여야 하고, 토지가 없는 교외와 가까운 학교는 농업협작사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어서 1958년 5월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공중앙 부주석 류사오치는 “두 가지의 교육제도, 두 가지의 노동제도”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²⁰⁾ 그리고 이 계획의 본격적인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 류사오치는 ‘반공반독학교(半工半讀學校: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한 노동제)’의 시행에 힘썼다. 또한 마오쩌둥은 8월에 텐진대학을 시찰하면서 “고등학교는 3가지를 특히 주의해야하는데 첫째 당의 영도, 둘째 군중노선, 셋째 교육과 생산노동 결합이 이루어져야한다.”²¹⁾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이 너무 오랜 시간 생산

18)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260.

19)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0.

20)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0.

21)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81.

노동에 참가하면서 학과수업과 지도 그리고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 등을 경시하자, 교육과 학업에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958~1960년 교육 공작 가운데의 “좌(左)”적인 실수를 교정하는 “조정, 공고, 충실, 제고”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범위에서, 1961~1963년 교육사업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다.²²⁾ 그 결과 1958년에 등장한 ‘반공반독(半工半讀)’ 제도가 거의 다 와해되었다.

그 결과 1958년에 등장한 ‘반공반독(半工半讀)’ 제도가 거의 다 와해되고 새로운 교육 조건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등교육 60조, 중학 50조, 소학 40조의 조례이다.²³⁾ 이 세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특징은, “지식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인민 노동자인 동시에 무산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자산계급 지식인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⁴⁾

그런데 마오쩌둥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산계급 지식인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사의 수급이었다. 당시 교사 수급은 사범학교 정비를 통한 배출과 기존 교사의 사상개조를 통한 재배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먼저 교사의 양성을 위한 기관과 교사후보생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1949년 초, 북경시에는 정규사범학교가 2곳이고, 학생은 667명에 불과했으며, 전국에는 중등사범학교 610곳, 학생 15.2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²⁵⁾ 이후 정부는 여러 정치적 우여곡절을 경과하면서도 학교와 학생의 증대를 위한

22)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81.

23) 전인영, 「중국의 현대 교육사 조면 : 중국 현대 교육사의 분기와 내용구조」, 한국교육사학회, 1999, p.53.

24) 전인영, 「중국의 현대 교육사 조면 : 중국 현대 교육사의 분기와 내용구조」, 한국교육사학회, 1999, p.53.

25) 현재, 전국 중등사범학교(유아사범학교 포함)는 962곳, 학생은 43.69만 인으로 증가되었다.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192:2~7.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1차 5년 계획(1953~1957) 시기에는 교육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예산과 건설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완만한 발전을 이루던 사범교육은 1958년 “대약진(大躍進)”의 영향으로 기형적으로 전개되었다. 1년 동안 중등사범학교 수는 4.5배 확대되었지만 교사의 수는 105인 증가했을 뿐이었다.²⁶⁾

한편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고등사범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1950년 5월 19일 사범교육의 기본 골격을 세운 《북경사범대학잠행규정》을 공포하였다. 《규정(規程)》은 총 6장 31조로 총강, 교학원칙, 학생, 교학조직, 행정조직 등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고등사범교육의 전면적 개혁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었다.²⁷⁾ 다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은 1951년 8월 27일~9월11일 소집된 제1차 전국사범교육회의²⁸⁾에서 결정되고 1952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던 《고등사범학교의 규정에 관해서(초안)》이었다.²⁹⁾

정부는 낙후된 지역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질 좋은 교사를 낙후된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제도도 추진했다. “북경에 존재한 사범학교에서는 꾸준히 교사를 배출해내고 있었는데, 이들 중등사범학교 졸업생들은 반드시 국가가 배분하는 것에 복종해야 했다.”³⁰⁾ 즉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 의해 정해진 곳으로 가서 임무를 시작하였다.

사범학교를 통한 교사의 양성 이외에, 현실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방법은 기존의 인적기반 위에 새로운 학교체계와 학습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즉 1949년 이전부터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을 재교육시켜 배치하는 방법이었다.

26)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21.

27)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258.

28)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258.

29)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258.

30)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198.

대학교육은 중요하고도 특수한 분야로 해방 후 공산당은 대학교육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은 지식인 간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지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구지식인을 개조함과 동시에 단결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과거 공산당을 동정했거나 해방 후 사상개조 중 성과가 좋은 고급지식인들을 중용하고자 하였다.³¹⁾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통해 양성되는 교사들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에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관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개혁의지가 투철³²⁾해야 했다. 그것은 “교사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라 조국 근대화의 전문적인 대열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들의 능력은 조국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³³⁾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교사가 주도하되 학생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그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사의 존재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들 또한 자신들이 ‘수정자본주의자’였던 교사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사상을 개조하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마오쩌둥은 새로운 사회에서 구(舊)교육 자원을 이용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였다.³⁴⁾ 그는 학교가 여전히 구(舊)지식인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된 학생들은 ‘수정자본주의의 맹아’로 등장함으로써 학교가 ‘수정자본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은 일찍부터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31) 王元周, 「학내모순과 문화대혁명의 사회적요인: ‘문혁’ 이전 대학내 역사학 연구자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2, p.103.

32) 劉壽祺 著/ 金東圭 譯, 『중공교육학』, 도서출판 主流, 1983, p.221.

33) 劉壽祺 著/ 金東圭 譯, 『중공교육학』, 도서출판 主流, 1983, p.220.

34) 李旭, 「“文化大革命”中的“教育革命”」, 『黨史博覽』, 2004, p.51.

로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래 마오쩌둥이 추구한 ‘교육혁명’은 주체를 학생들로 보면서 그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요구했다. 즉 ‘사생관계’란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이고, 학생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정자본주의적 생각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와 학생은 평등한 관계이자 상호 학습적인 관계로 규정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과격하게 변화되었다. 즉 지식인에 대해 더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교육혁명을 전면에 내세워 자산계급 지식분자에 의해 장악되어있는 학교를 무산계급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주의의 발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1966년 8월 8일 중공 8계 11중 전회에서는 《무산계급에 관한 문화혁명의 결정》(16조)에서 “교육혁명”의 임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구(舊)교육 제도 개혁, 구(舊)교육 방침과 방법의 개혁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고, 자산계급 지식분자들이 학교의 현상을 통치하는 것을 반드시 철저히 변화시켜야 된다.”³⁵⁾

마오쩌둥은 구(舊)교육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수정주의 노선이 실행된 증거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구(舊)교육 제도를 가져온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한다.³⁶⁾ 구(舊)교사들에 의해 학교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인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자들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1966년 이전에는 제도의 결함과 불평등이 상당히 심했으며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 대부분의 교육자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³⁷⁾,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희박했다. 그 결과

35)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6.

36) 李旭, 『“文化大革命”中的“教育革命”』, 『黨史博覽』, 2004, p.51.

37)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94 (좌).

도시와 농촌 간에는 더욱 큰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구교사들이었다. 구(舊)교사들은 신(新)중국이 성립되고 계속해서 자아비판을 사상개조와 받으면서 자존감을 잃어갔으며 학교 내에서의 지위도 하락했다. 학생들은 구(舊)교사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고 혁명적이지 못한 학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사상적인 엄격한 기준은 교육보다 투쟁을 강조하는 현실로 작용하였고, 이것은 문화대혁명에서 폭발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사상개조 공작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공산당 원인 동시에 청년 지식층이던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는 그 유명한 모순과 투쟁이 드러나게 되었다. 교육을 받고 온 교사의 권위와 그를 받아들이는 학생의 자세는 분명히 예전 중국이 가지고 있던 교육 자세와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는 것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관계일 뿐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투쟁은 무산계급 대 자산계급의 투쟁이고, 교사는 투쟁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³⁸⁾ 이러한 마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반파(造反派)는 ‘고교60조(高教六十條)’의 시행이 각 대학으로 하여금 또다시 “구(舊)교수가 학교를 다스렸던(教授治教) 구태를 반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³⁹⁾ 이렇게 선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선동한 행위는 전국의 각급 학생들에게 확산되었다.

한편 1964년에 만들어졌던 제3차 5년 계획은 “문화대혁명” 당시 고등교육부와 교육부가 잇따라 마비되고 교육계획 업무도 중지되자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1967년 3월, 중공중앙에서는 《중학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 의견에 관해》를 근거로 10월, 북경시혁위회 문교조는 소학, 초중 학생 모집에 대해 제

38)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p.129.

39) 王元周, 「학내모순과 문화대혁명의 사회적요인 : ‘문혁’ 이전 대학내 역사학 연구자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2호, p.105.

출한 내용에서 초중 학생 모집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⁴⁰⁾ 또한 교직원 인력의 부재도 고등학교와 중등전문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한 이유의 하나였다.⁴¹⁾ 1966년, 초·중 학생 모집이 1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음해에는 소학교 졸업생 32만 명이 동시에 초·중에 진학했다.⁴²⁾

또한 학교 과정이 짧을수록 혁명에 유리하고 단순하면 할수록 좋다는 취지 아래, 각급학교를 모두 정치학교의 성격으로 바꾸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폐지시켰다. 그들은 각종 농업학교나 직업학교, 중등 과정의 업어(業興)학교를 통합하여 단일학교로 통합시켰다.⁴³⁾ 학생들도 기초 학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출신성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결국 건국 이래 17년간에 이루어졌던 교육 부분의 성과는 “문화대혁명” 중에 대부분 부정되어 사범교육 운영규율과 전통이 훼손되었다. “문화대혁명” 중에는 각 사범학교에는 통일된 교사 배양 목적이나 통일된 교학계획도 없었다. 사범학교 과정은 각 학교에서 결정해서 실시⁴⁴⁾하는 파행이 이루어졌다. 또 학교 운영 간부들은 철저한 공격을 받았고, 교사들도 심한 박해를 당했다. 학교 내 도서자료, 기물, 시설도 큰 손실을 입었다.⁴⁵⁾ 그 결과 이 시기는 사범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혼란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교육의 혼란은 중학 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보통학교의 학제 단축은 일반적이었다. 1969년 11월 11일, 북경시혁위회에서 학제 개혁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소학 5년, 중학 5년, 10년 교육 보급을 시행한다.”⁴⁶⁾ 그리고 중학의 과목 수도 14개에서 9개로 줄였다. 다시

40)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81.

41)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94 (좌).

42)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 306

43) 노동시간이 끝나고 여가를 이용하여 배우는 業興 교육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농민, 공인, 재직간부와 기타 직종에 소속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데 교육을 통하여 자질향상과 임무수행에 보탬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고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劉壽祺 著/ 金東圭 譯, 『중공교육학』, 도서출판 主流, 1983, p.79.

44)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27.

45)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22.

1970년 10월 20일, 북경시혁위회문교부는 「성시(城市) 중·소학 교육혁명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보고」에서 소학은 5년으로 고치고, 중학은 4년으로 고치고 농촌 중학은 2·2분단의 학제 개혁안을 제출하였다.⁴⁷⁾ 이러한 중학교육의 축소는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인재들의 학습능력의 저하로 나타났다.

게다가 교사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사의 인적 손실과 함께 물적 손실로도 연결되어졌다. 교사는 신 중국 성립 20년 후에도 여전히 교육 개조의 대상이었고, 게다가 학생에 의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던 것이었다.⁴⁸⁾ 교사들은 정치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공장·농촌·부대 등에 들어가서 재교육을 통한 교육 혁명을 달성해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교육이라 불릴만한 것은 없었고 기존의 업무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고 위축된 교사의 위치로 인해 자유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은 경직되고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의 지식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1970년부터였다. 우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래 몇 년간 중단되었던 신입생 모집이 1970년에 소수 고등학교에서 공농병(工農兵) 학생을 모집하면서 시험적으로 재개되었다.⁴⁹⁾ 한동안 멈춰있던 학생 모집이 70년에 다시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모집된 학생은 노동자, 농민과 군인들로 이들의 학습 능력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동시에 1971년 4월, 새로 성립된 국무원 과교부가 소집한 전국교육업무 회의에서는 전국 417개 고등학교에 대한 조정, 폐교, 합병 등을 통해서 309개로 확정함으로써 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되

46)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6 (우).

47)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6 (우).

48)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p.127.

49)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94 (좌).

었다.⁵⁰⁾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교사들에게는 “자산계급지식분자”의 모자가 씌워졌고 교사의 지위는 역사상 최하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이렇듯 소위 평등한 혁명 동지로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학생의 지위는 역사상 최상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반(反)영도, 반(反)교사, 반(反)조류의 “혁명소장군”이 등장하였다.⁵¹⁾ 이러한 “혁명소장군”들에 의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휴강하고 혁명을 외쳤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더 이상 ‘존사애생(尊師愛生)’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 학생의 사상, 도덕 수준은 크게 떨어졌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의 기본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으며,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곤란한 조건에서도 일부 교직원들은 교육, 교학, 과학 연구에 공헌⁵²⁾을 하면서 다음 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저우언라이는 1972년 당 중앙 일상 업무 기간을 주재하면서 “사인방”의 도행역시(倒行逆施)을 겨냥한 극“좌(左)”사상 비판을 제출하였다. 당 간부 정책, 지식분자 정책을 실행하면서 “혁명을 위해 업무, 문화와 기술을 배우자”라고 제창하였고, 기초 이론 학습과 연구 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였다.⁵³⁾ 저우언라이의 활동은 당시 “사인방”의 횡포로 인해서 침묵하고 있던 중국 사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 뒤이어 1975년 덩샤오핑은 교육의 정돈과 함께 대학이 단지 ‘7·21’⁵⁴⁾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존중과 학생은 신중하고도 진지한 학습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문화대혁명 종결 후에 교육 혁명은 재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50)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94 (좌).

51)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p.126.

52)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83 (우).

53)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83 (우).

54) 1968년 7월 21일, 마오쩌둥이 교육개혁에 관한 지시 (일명 7·21지시)에 의해 노동자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기업 내에 설치한 대학을 말한다.

된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당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신 중국 성립 후, 교육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던 공산당은 기존에 있던 교사들의 사상 개조를 통해서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의 지위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당은 ‘존사애생(尊師愛生)’이라는 방침을 내걸고 교수 주도의 교육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교사와 학생은 상하수직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교육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교육혁명’을 생각했고 이는 곧 문화대혁명과 맞물리면서 학교에 거대한 파괴를 가지고 오면서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문혁이 종결되고 1980년 6월에 전국 사범교육공작회의에서 《교육부에 중등사범교육 운영을 위한 의견에 관해서》와 《중등사범학교규정(시행초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에서는 중등사범학교와 유아사범학교의 교학계획이 들어있었다.⁵⁵⁾ 이 계획의 실천을 통해서 문혁 기간에 후퇴된 사범교육은 다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직면하게 된 문제는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학교가 재개되었을 때,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추락된 교권을 가지고 학생들을 장악할 있냐는 것이었다. 또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사와 다시 가동된 사범교육을 통해 들어온 교사 사이의 관계는 원만했을까?’라는 의문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55)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122.

II.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문화대혁명시기 모든 것이 정치화 · 계급투쟁화되면서⁵⁶⁾ 발생하였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신 중국 성립 후 10년 동안 전개되어오던 사생관계(師生關係)가 왜곡되고 훼손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시기의 사생관계 사상⁵⁷⁾에서 집중적으로 보여 졌던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지위였다.⁵⁸⁾ 이 문제는 과거에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교사의 지위 하락과 학생의 지위 상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신 중국 건립 이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발전시켜온 ‘존사애생(尊師愛生)’이 파괴되는 특수한 시기였던 것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이 사생관계 사상에서 주장하던 교사 주도 학습에서 학생들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평등한 관계가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1. 교사들의 시선

사회주의의 교육은 무산계급이 전(全) 국가권력을 확고히 갖도록 돕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 발전과 생산력 향상 도모는 다음 단계인 공

56)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p.124.

57) 사생관계는 크게 ① 신중국성립~문화대혁명前 교사 주도의 교사와 학생의 民主平等사상 ② 문화대혁명시기 교사와 학생의 民主平等사상 왜곡과 파괴 ③ 개혁개방전기(1976~1994) 교사와 학생의 民主平等사상은 학생 주체로 다시 확립됨 ④ 개혁개방근기(1995~2008) 교사와 학생의 民主平等사상의 발전과 심화로 나뉘어진다.(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58) 위의 책, p.124.

산주의 국가 건설을 대비⁵⁹⁾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공산당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시키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교육사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나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자원인 지식인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사들은 사상교육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시기 교사와 학생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면서 대립시켜서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국이후 교사가 자산계급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투쟁의 대상이 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아무 의심 없이 교사들을 탄압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년학자들과 비교하면 노년학자들은 비록 학문적으로는 우세에 있었지만, 그들은 구지식으로 여겨졌고, 구지식인은 ‘부르주아 지식인’의 대명사였다. 해방 후 그들의 계급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정적 인식은 그들이 해방 후 개조 혹은 복종의 지위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상개조를 거쳐 자신의 세계관, 학술사상과 방법을 변화시켜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청년학자 및 학생의 면전에서 노년학자들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⁰⁾

위와 같이 지식인으로써 교사의 지위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평등하게 지식을 전달의 역할로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면만 보고 모든 학생들이 교사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9) 유수기 저·김동규 역, 『중공교육학』, 주류, 1983, p.19.

60) 王元周, 「학내모순과 문화대혁명의 사회적요인: ‘문혁’ 이전 대학내 역사학 연구자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2, p.109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쟁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는 문화대혁명 때 최고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존사애생’의 틀에 의해 만들어진 사생관계의 학생들이 아무 의심 없이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문화대혁명” 시기,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사생관계는 “혁명적, 민주적, 단결적인 새로운 형태의 사생관계”, “사생은 같은 참호의 전우로 동지식 관계”이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실천의 현실은 “혁명학생”과 “자산계급지식분자”의 개조와 개조되어야 되는 적대관계이다. 61)

위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 중국의 새로운 사상에 매료된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기존 교육에서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민주 평등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동지식 관계’로 형성되어지길 원했다. 이는 문화대혁명을 받아들이는 한 지식인의 자세에서도 알 수 있다.

나 자신조차 거의 죽도록 맞았을 때에는 ‘문화대혁명’이 옳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탓할 수 있겠는가?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모두가 피해자이며, 다만 그들이 선 위치가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나는 보복할 마음이 없어졌다. 62)

‘문화대혁명이 옳다.’라고 믿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비판과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마오쩌둥에 의해 일어난 이 혁명을 부정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61)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p.136.

62) 계선림 지음, 이정신·김승룡 옮김, 『우봉잡역』, 미다스북스, 2004, pp.12-13.

이 기간에 당하였던 비판이나 사상검증 혹은 신고는 자신의 학생이나 가족 등과 같이 친밀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감싸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예는 판센의 〈홍위병〉과 동시(東西)의 〈MR. 후회남〉에서 잘 보여진다. 〈홍위병〉에서는 부모님이 주인공의 안위보다는 혁명적이지 못한 사상을 더 걱정하시는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 〈MR. 후회남〉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의 입방정으로 만천하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부자는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이 두 가족은 전혀 다른 유형이지만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족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삶 전체가 일그러지는 과정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가족 내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게 발생할 수 있었고, 발생하였을 것이다. ‘수정자본주의자’라는 모자를 쓰게 된 부모나 형제자매를 둔 집은 당연히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비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지식인 등은 자신들의 머리에 어떤 모자가 씌워질지 생각하고 기다리며 홍위병의 폭력만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 혁명전사들에게 공손해졌을 것이다. 나아가 이 혁명전사에 의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들은 대규모 공개집회에서 비판을 당하고 자아비판을 했다.

당시에 교육계, 학술계, 신문계, 문예계, 출판계는 거의 모든 영도 간부가 ‘흑방’, ‘주자파’, ‘반혁명 수정주의분자’로 간주되어 공개집회에서 비판을 받고 재산이 몰수되었다. 많은 사회과학자, 문학자, 예술가, 자연과학자, 의학자와 저명한 교수, 편집인, 기자 등은 모두 ‘반동학술권위’, ‘반혁명·수정주의분자’로 간주되어 공개집회에서 비판을 받고 재산이 몰수되었다. 많은 공산당원, 공청단 단원, 간부, 교사, 노

동모범이 ‘보황파’, ‘사회상의 모리잡배’, ‘검은 앞잡이’로 간주되어 공
개집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수정주의의 맹아’로 간주되어 고립되었고 공격을 받았다.⁶³⁾(강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일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교사와 친밀해 보이는 학생들도 그러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현상이 보였다.

한편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하방노동(下方勞動)에 처해지고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이들의 공적 지위는 대개 그대로 유지되었고 급료도 받았다는 사실이였다.⁶⁴⁾ 교사들은 사상개조(思想改造)를 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교직원에게서 교사로서의 권위와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교육발전에 공헌하는 등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나를 신문하는 사람은 동방학부 학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초빙한 교원들이었다.”⁶⁵⁾ 라는 회고를 살펴보면, 홍위병도 자신을 가르쳐 준 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모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신문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이어졌다. 최초에 나를 신문했던 사람들(그 중에는 내 제자들도 몇 명 있었다)은 그래도 가끔씩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차츰 강경하게 변해갔다. 아무래도 나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뭔가’

63) 진춘명 지음, 이정남 외 옮김, 『문화대혁명사』, 나무와숲, 2000, p.149.

64)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04, p.526.

65) 계선림 지음, 이정선·김승룡 옮김, 『우봉잡역』, 미다스북스, 2004, p.180.

생긴 듯하다. 내친김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자! 그때 나를 신문했던 친구들아, 자네들은 당시 이 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믿었던 말인가?⁶⁶⁾

강경한 심문자로 변화되는 제자들을 보고 화자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모든 사상을 뒤엎어버려 그들은 눈앞의 사실만을 사실로 여겼다. 뒤에 그는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자신이 복권되었다고 했지만 당시 자신들을 신문했던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동안 자신을 비판했던 교직원들과의 생활에서 역전된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종결 후 복귀한 자들과 그들을 비판했던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10년 동안 무너진 교육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이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 또 문화대혁명 같은 혁명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쩔 복수를 꿈꾸지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그들이 겪은 경험은 그들에게 무기력감을 남겨주고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기력감은 그들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진데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에 의해 지주, 깡패, 우익분자, 자본가로 낙인찍힌 사람은 누구나 집 밖에 나갈 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패를 패용해야 했다. 모든 방에는 최소한 세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했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로 내주어야 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비판했고, 학생들은 교사들을 비판했다.⁶⁷⁾

66) 위의 책, pp.121~122.

67) 조너선D. 스펜스 지음, 남경태 옮김, 『무질서의 지배자 마오쩌둥』, 푸른숲, 2007, pp.243~244.

중학교는 문을 닫거나 학교가 열려있다고 해도 공간을 홍위병들에게 내주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공부와 노동을 병행해야 했으며 학문은 쓸모없는 것으로 경시되었다. 교사들은 그러한 학생들에게 반항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꾸준히 학문을 연구하였다. 68)

물론 당시 학생들과 어린애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단편적인 회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백지 답안지를 모범적이라고 공표하며, 시험을 폐지⁶⁹⁾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의 회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4인방의 무정부주의적 선동이 극에 달해 팔죽 끊듯 교실이 시끄러워지자, 교무실에서 아예 교육을 그만두자고 불평을 터뜨리다가도 시작중 소리가 울리면 그는 당장 교실로 달려가 온 정력을 다해 분필로 흑판을 치며 소리쳐 설득하고 타이르고 위협을 해가며 기여어 학생들에게 방정식과 다면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야 마는 것이다. 70)

이 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쨌든 1970년대부터 다시 문을 연 학교에는 여전히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학생들이 이용되고 언제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다. 또한 위 소설 속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모습과 함께, 종종 혁명사상을 믿는 학생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선생과 학생, 학생과

68) 陳白塵, 『緘口日記(1966~1972)』, 대상출판사, 2005.

69) 유수기 지음, 김동규 역, 『중공교육학』, 주류, 1983, p.79.

70) 유심무 지음/ 박재연 옮김, 『고련-담임선생』, 백산서당, 1987, p.130.

학생 사이의 일그러진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반의 담임선생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동란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상, 생각을 '좌(左)'성향으로 경직시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사회가 기형적으로 만들어버린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보이는 교사 혹은 작가의 생각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학생들을 집어삼켜서 기형적으로 만들어버린 사회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사회 ·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적지 않은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은 10년 동안 공농병(工農兵)학생들에 의해서 관리 받고 혁명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한 지식습득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학습에서 멀어지고 노동을 하던 학생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2. 학생들의 시선

한편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마오쩌둥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당시 학생들은 책이 아닌 무기를 들고 투쟁의 길로 내몰렸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사상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홍위병은 북경지역의 중고등학교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⁷¹⁾

이러한 과정에서 '마오쩌둥 사상의 절대적인 권위를 뿌리심을 것'⁷²⁾이라는

71) 叶青, 『“文革”时期红卫兵组织之特徵』, 『福建師範大學學報』, 2004, p.114.

72) 곽양욱 지음, 문용성 옮김, 『고깔모자를 쓴 지식인』 (상), 청화학술원, 2004, p.201.

사항이 요구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단체의 성격은 점점 더 좌경화되어지고 먼저 학교 내의 ‘수정자본주의자’들에 대한 대중 집회에서 강한 규탄들을 쏟아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극좌적인 성향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로 문화대혁명을 바라보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극소수의 극단분자 외에 홍위병들은 운동 중에 극좌적인 방법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한 당의 각급 영도간부에 대한 잔혹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훗날의 실천 중 그들은 서로 다른 곡절을 겪고 자각이 향상되면서 점점 문화대혁명의 발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적극적인 참가로부터 소극적 관망에 이르렀다. 일부는 더 나아가 배척과 반대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상이한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⁷³⁾

그 결과 처음에는 극소수였던 극단분자들의 행동과 사상이 어느새 홍위병 전체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홍위병이 해야 될 일이였다는 듯이 어느새 잔인한 비투(批鬥)로 이어지게 되었다. “문혁영도소조” 이름의 “특령(勸令)”은 나를 회의에 세우고 반 전체 학생들에게 나를 “대련(對聯)”이라는 죄행으로 선포하였다.⁷⁴⁾에서 볼 수 있듯이 반감을 가지거나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가하였다.

이 시기에 보이는 집단주의는 개인이라는 단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거대한 압력은 개인의 생활까지 통제하면서 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 사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고 세뇌했다. 물론 그저 혁명을 하나의 볼거리로 여기고 휴교되는 자체가 좋아서 이 멋진 혁명조직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73) 진춘명 지음, 이정남 외 옮김, 『문화대혁명사』, 나무와숲, 2000, p.150.

74) 북도조일범·유일編, 『暴風雨的記憶』, 三聯書店, 2012, p.9.

북경 제6중학교는 홍위병이 아주 많은 학교였다. 거기서 오류분자 뿐 아니라 ‘구사자(拘蕙子), 혼단(混蛋)’을 더하여 흑칠류를 만들어 전부 끌고 가서 탄압을 일삼았다. 북경 제6중학교의 홍위병들은 노동교화소를 설치해 반동분자들을 심문하였다. 그들에게 걸려들면 숯불 위에 꿰어앉히기, 얼굴에 페인트칠하기, 목매달기 실험, 머리를 땅에 대고 큰절하기, 비행기 태우기, 머리카락 태우기, 칼로 엉덩이 저미기, 끓는 물에 목욕시키기, 사격연습, 갑자기 쿡 찌르기, 다리 걸어 넘어드리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자백을 하여야 했다. 75)

‘반동분자’들에게 행한 다양하고 잔인한 폭력은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잔혹해지는 홍위병들에 의해서 하나씩 생겨난 것들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은 다수로 퍼져나가며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길들여졌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혁명가는 적에게 동정심을 느껴서는 안 되었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익히 배워온 사항이었다. 우리는 오히려 그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다는데 대해 분노를 느꼈다. 집회는 한층 더 열광적으로 한 시간이나 이어졌고 나는 다른 홍위병들과 어울려 장군의 시체에 대고 구호를 외쳐대며 혁명을 피해간 장군의 배신 행동을 성토했다. 죽은 사람을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혁명의 광기가 그 순간 공포조차 제압했던 것이다. 76)

이 소설의 홍위병은 처음 본 시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혁명에서는 ‘혁

75) 곽양욱 지음, 문용성 옮김, 『고갈모자를 쓴 지식인』 (상), 청화학술원, 2004, pp.218~219.

76) 沈凡 지음, 이상원 옮김, 『홍위병』, 황소자리, 2004, p.41.

명가'와 '적'으로 나누어지고 '적'에 대한 적개심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귀함마저도 잊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먼저 학교에서 자신들의 교사를 공개집회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학생들은 이 혁명이 꽤 즐거운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어찌됐든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교사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들에게 항상 보여 지던 위엄이고 도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휘둘리고 자신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비는 광경을 학생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테지만 이를 행동으로 말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 혁명의 광기에 같이 휩싸여버리기도 했을 것이다.

당 공작조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조직들은 지식인을 박해하는 것 외에도 출신이 '안 좋은' 동료학생, 즉 이전에 지주·부농·자본가의 자녀 또는 지식인 부모를 둔 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계급성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득이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77)

어느새 동료의 성분까지 문제삼아 비판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혁명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동지까지도 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78)

열두 살인 내가 보기에 그거 혼란스러울 뿐인 언어 전쟁이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홍위병 팀이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 싸운다고 주장한다는 점,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색출을 명한 숨은 적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였다. 79)

77)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04, p.459.

78) 沈凡 지음, 이상원 옮김, 『홍위병』, 황소자리, 2004, p.41.

위 글의 화자가 믿고 있던 모든 사상이 부정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투쟁 대상자들이 사실은 죄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혼란을 겪는다. 이는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걷히면서 드러난 파괴된 개인의 자아와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불신과 두려움으로 볼 수 있다.

혁명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변모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직도 훌륭한 혁명가 인지조차 헛갈렸다. ‘교활한 적들’ 편에서 싸웠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중략) 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로 위대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장 충성스러운 홍위병도 알아보지 못하고 체포해버리다니! (중략) 하지만 아무리 감추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망울씩 떨어지는 물처럼 그 의심은 점차 내가 배웠던 모든 것, 위대한 지도자와 혁명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때까지 숭배해왔던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이었다.⁸⁰⁾

그가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과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 안 되는 이 상황은 혁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회적 불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혁명에서 빠져나와 관망의 자세로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학교에 나가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기의 학생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써 존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혁명에 협력하고 이용하려는 자, 이를 반대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혁명에 의해서 비판당하는 자로 크게 나뉘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79) 沈凡 지음, 이상원 옮김, 『홍위병』, 황소자리, 2004, p.36.

80) 沈凡 지음, 이상원 옮김, 『홍위병』, 황소자리, 2004, p.82.

이 시기의 가해자는 어디 있고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또한 이 홍위병과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의식변화와 문화대혁명의 종결은 어떠한 관계의 변화를 낳았을까?

Ⅲ. 문화대혁명 이후 사생관계의 변화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과 함께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문화대혁명에 파행되었던 신입생 모집이 1977년 고교 입학시험의 회복⁸¹⁾으로 정상궤도로 들어섰다. 그러나 10년 동안 파괴되었던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파괴된 교육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중국 정부는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발전을 이룬 교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잃어버린 10년의 공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만이 아닌 무너진 교권과 경직된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 중국이 성립될 때 주장한 ‘존사애생(尊師愛生)’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도 여전히 지식인들은 겁을 먹고 있었고 언제 다시 문화대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다. 최근에 몇몇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모두 허둥대고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으며, “마음속에 공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시인했다.⁸²⁾

이러한 공포는 지식인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 가야되는 과정에서는 불편한

81)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p.85.

82) 바진 지음, 홍석표 외 옮김, 『매의 노래』, 황소자리, 2006, p.95.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⁸³⁾

동시에 학생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외관상 몇 년 안에 비교적 쉽게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사병,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가 대학과 중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교육시켰고, 한때 폭동 시기에는 ‘젊은 혁명 장군들’로 간주하던 청소년들을 다시 지적으로 겸손하고 정치적으로 복종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⁸⁴⁾

다시 ‘복종적인 사람’⁸⁵⁾으로 변신된 학생들은 과연 이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치던 사상과 다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지만, 학생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로 인해 새로운 사회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였다.

윤 선생이 한 달 남짓 매일 오후 4시 이후에 수학적 성적이 뒤진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지도를 하는 외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그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해친 4인방을 증오했다. 4인방이 국민경제에 끼친 눈에 띄는 해독보다도 더 중요하게 수억 대중의 영혼에 덮어 씌운 보이지 않는 오염을 보았기 때문이다. 빨과 가시로 무장한 장철생 같은 4인방의 망나니는 그렇다 하더라도 송보기를 기형아로 낳은

83) 왕명 지음, 임국웅 옮김, 『나는 학생이다』, 들녘, 2004, pp.53~54.

84)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지음, 박상수 옮김, 『중국현대사』, 심산, 2009, p.210.

85)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8, p.62.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복종화의 성과인 것이다. (중략)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또한 신체의 감옥이다. p.217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중략) 경제적 착취가 노동력과 노동 생산물을 분리한다면, 규율에 의한 강제력은 증가되는 소질과 확대되는 지배 사이의 구속관계를 신체를 통해 확립해 두는 것이다.

것을 볼 수 있었고, 사혜민 같은 순수한 아이에게조차도 혹독한 우민 정책의 낙인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4인방은 중화민족의 현재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미래까지 망쳐 놓았다!⁸⁶⁾

문화대혁명 시기 지식을 경시하고 이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송보기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혁이 종결된 후의 송보기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를 국가는 폭력을 통해 ‘복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무력감을 들어냈다. 이는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사회 전체가 마치 바람 빠진 가죽 공 같았고 청년세대는 퇴폐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무너진 세대’라 불렀지요.”⁸⁷⁾ 와 같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종적인 인간’은 송보기와 같은 ‘무너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송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혜민과 같은 인물에도 해당되어진다. 그녀는 여전히 문화대혁명기간에 선전했던 사상을 믿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이러한 변화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좌(左)경화된 사혜민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담임선생은 교육자로써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석홍, 사혜민, 송보기는 당시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표현된 모습은 다르지만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사회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석홍은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는 신지식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혜민은 여전히 문화대혁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복종적인 인간’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 송보기가 아는 혁명은 폭력을 통해서

86) 위의 책, pp.128~129.

87) 리저허우·류짜이푸 지음, 김태성 옮김, 『고별혁명』, 북로드, 2003, p.154.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였고 종결 후에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다.

이들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담임선생이라는 존재가 품어 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담임선생은 크게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겹치고 겹친 재난이 인간관계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와 타인을, 그리고 모든 사물을 새로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⁸⁸⁾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 사회에 존재했던 가치와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짓밟혔다. 한번 짓밟힌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이는 관계의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회복되어졌는지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구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교내 모순에 대해 앞장서 투쟁했던 홍위병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보겠다.

청년시절만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후회가 없으며, 헌신적이고 시적이고 전대미문의 탁월한 인생이며, 사상이 성숙되던 시기라고 회상하곤 한다. ‘홍위병’들과 농촌으로 내려가고 임산 마을로 올라간 청년들은 이렇게 당시의 지난날을 회고하곤 한다. 물론 이것도 무방하긴 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늙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오늘은 ‘옳고’ 지난날은 ‘아니다’ 라거나, 이와 반대로 지난날은 옳고 오늘은 아니다 라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통속적이며 즉흥적이다.⁸⁹⁾

88) 다이 호우잉 지음, 신영복 옮김, 『사람아 아, 사람아』, 다섯수레, 1995, p.61.

89) 왕명 지음, 임국웅 옮김, 『나는 학생이다』, 들녘, 2004, pp.300~301.

청년층도 큰 위기에 빠졌다. 일부 홍위병은 망명을 선택했다. 그들이 쓴 회고록들 - 《하늘의 복수》(Ken Ling, The Revenge of Heaven : From Schoolboy to “Little General” in Mao’s Army, English text prepared by Miriam London and Ta-ling Lee, New York : Putnam, 1972), 《홍위병》 - 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말해 준다. 대부분 농촌에 보내졌던 홍위병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은 마찬가지였다. (중략) 또한 아직 제대로 재건되지 못했고 이미 엘리트주의를 띠고 있던 교육 제도 속에 다시 편입될 수 있었던 이들도 적었다. 천안문의 거대한 시위에 참여했던 열정적인 젊은이들은 단지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할 뿐이었다.⁹⁰⁾

위의 두 글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인 중 홍위병으로 보낸 세월을 가장 찬란한 시기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상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과 홍위병시기에 대한 기억이 고통으로 남아서 중국이라는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간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 이 두 홍위병이 받아들이는 문화대혁명은 다르지만 그들이 중국이라는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이다.

90)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지음, 박상수 옮김, 『중국현대사』, 심산, 2009, pp.236~237.

결론

20세기에 일어난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동시에 폭력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은 중국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일으켜진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보통 시민들이 그 체제의 보다 야수적인 만행들에 찬성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시민들이 그러한 만행들을 기껏해야 제한된 탈선 정도로 보았다.”⁹¹⁾ 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문화대혁명이 보편적이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에 일반 시민들이 느낀 홍위병들의 행동은 위와 같이 제한된 탈선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홍위병들 자체도 처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이 아니다. 혁명이라는 광기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은 잔혹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졌다. 그리고 이를 사회에서는 묵인하고 용서하면서 문화대혁명이 종결한 뒤에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에선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 혁명의 소용돌이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전체가 뒤틀려 버렸다고 판단되어진다.

“문혁”시기, “좌(左)”사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권”은 자산계급의 것으로 비판당하면서 인권이 무시되고 침범되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⁹²⁾ 이는 특히,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로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홍위병인 학생이든 아닌 학생이든 그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집단에 이익에 반하

91) 에릭 홉스봄 지음,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 (상)』, 까치, 2009, p.213.

92) 胡丹, 徐德剛, 『中國人權理論三十年發展與展望』, 『法制與社會』, 2009, p.237.

는 개인은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중국공산당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던 학생의 주체성과 창조성은 오히려 억눌러지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모순적인 면은 오늘날 비난받는 ‘문혁10년’ 동안 농촌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이 급격히 증가했다.⁹³⁾ 점을 들 수 있다. 마오쩌둥이 추구했던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점은 현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하락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지금 사회 각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인권법 이론이 되도록 빨리 형성되길 원하며⁹⁴⁾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써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자신과 가족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의 변화가 보여 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산당 지도층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여아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구경만하고 심지어 사진으로 촬영⁹⁵⁾하는 모습은 중국에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중국인들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현재 중국의 모습과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문화대혁명의 기억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을 믿어야 되고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 봐야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20세기에 유행했던 커다란 선택 즉, 투쟁과 혁명, 네가 죽어야 내

93)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04, p.519.

94) 宇鳳利, 「中國人權法律進程之綜述」, 『法制與社會』, 2008, p.10.

95) <파이낸셜뉴스>, 2011. 11. 01.

가 산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개선, 다원공생의 사고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 파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21세기의 중국은 또다시 고통과 폭력으로 가득 찼던 20세기의 정치놀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⁹⁶⁾

즉, 문화대혁명 동안 교내에서 일어났던 교사와 학생 간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투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와 너’라는 관계가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에도 여전히 무의식중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사회인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본 교사와 학생 간의 투쟁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인간 對 인간’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학교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중국의 보통 사람들의 관계와 이것이 어떻게 무너졌고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에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재건해 나갔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문화대혁명을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문화대혁명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중국에 남아서 그들의 사상, 생활, 행동 등에 제약을 가하고 벗어나지 못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말하기를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에 의해서 일어난 사회문제로 여기지 이것을 문화대혁명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회문제를 개혁개방으로만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라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

이 글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학교라는 공간을 시간 순으로 봤을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사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특히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96) 리저허우·류짜이푸 지음, 김태성 옮김, 『고별혁명』, 북로드, 2003, pp.63~64.

해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종결과 동시에 반성할 틈도 없이 지워진 시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개혁 개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혼란은 계속 방치되었다. 이는 현 제도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보이는 '나와 너'라는 분리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北京日報』

<정부기관 자료>

《中國教育年鑒》編輯部 編, 『中國教育年鑒 : 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北京市教育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市普通教育年鑒 (1949~1991)』, 北京出版社, 1992.

2. 연구저서

-국문

계선립 지음, 이정선·김승룡 옮김, 『우봉잡역』, 미다스북스, 2004.

곽양욱 지음, 문용성 옮김, 『고깔모자를 쓴 지식인』 (상), 청화학술원, 2004

구자익 지음, 『중국의 교육』, 원미사, 1997.

김재선 지음, 『모택동과 문화대혁명』, 한국학술정보, 2009.

다이 호우잉 지음, 신영복 옮김, 『사람아 아, 사람아』, 다섯수레, 1995.

리저허우·류짜이푸 지음/ 김태성 옮김, 『고별혁명』, 북로드, 2003.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지음, 박상수 옮김, 『중국현대사』, 심산, 2009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04.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8.

바진 지음, 홍석표 외 옮김, 『매의 노래』, 황소자리, 2006.

沈凡 지음, 이상원 옮김, 『홍위병』, 황소자리, 2004.

에릭 홉스봄 지음,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 (상)』, 까치, 2009.
 왕명 지음, 임국웅 옮김, 『나는 학생이다』, 들녘, 2004.
 유심무 지음/ 박재연 옮김, 『고련-담임선생』, 백산서당, 1987.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남경태 옮김, 『무질서의 지배자 마오쩌둥』, 푸른숲, 2007.
 진춘밍 지음, 이정남 외 옮김, 『문화대혁명사』, 나무와숲, 2000.
 劉壽祺 著/ 金東圭 譯, 『중공교육학』, 도서출판 主流, 198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현대문학과 만남』, 동녘, 2006

-중문

邵曉楓, 『百年來中國師生關係思想史研究』(1900-2008), 四川大學出版社.
 陳白塵, 『緘口日記(1966~1972)』, 대상출판사, 2005.
 叶青, 「“文革”時期紅衛兵組織之特徵」, 『福建師範大學學報』, 2004.
 北島·曹一凡·維一 編, 『暴風雨的記憶』, 三聯書店, 2012.

3. 연구논문

-국문

안경식, 「20세기 중국교육사학의 이해」, 『중국교육연구』, 2002.
 安致穎,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 자료 안내」, 『현대중국연구』 제8집 2호, 2007.
 왕원주, 「학내모순과 문화대혁명의 사회적요인 : ‘문혁’ 이전 대학 내 역사학 연구자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2, 2006.
 전인영, 「중국의 현대 교육사 조면 : 중국 현대 교육사의 분기와 내용구조」, 『한국교육사학회』, 1999.

-중문

高阜, 嚴家其 지음, 『“文化大革命”十年史』, 天津人民出版社, 1989.
 李銳, 『李銳論說文選』,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李旭, 「“文化大革命”中的“教育革命”」, 『黨史博覽』, 2004.
 叶青, 「“文革”時期紅衛兵組織之特徵」, 『福建師範大學學報』, 2004.
 胡丹, 徐德剛, 「中國人權理論三十年發展與展望」, 『法制與社會』, 2009.
 宇鳳利, 「中國人權法律進程之綜述」, 『法制與社會』, 2008.

<中文概要>

文革時期，北京的人際關係受到生死考驗

金熙淑

史學科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文化大革命是過去10年（1966年~1976年）間震撼中國社會的事件。無論積極方面還是消極方面，這事件均影響了中國人的生活。本論文打算通過登場于文化大革命的紅衛兵的登場，仔細研究在學校這空間中教師與學生的關係。並且，還要研究在文化大革命結束後再回到學校的教師與學生的關係。要通過學校這“小社會”，擴展到中國這“巨大的社會”後進行研究。通過本論文，要確認因文化大革命變化的當代中國社會的“個人與個人”的樣子如何顯現。

自從新中國建立以來，中國共產黨迅速掌握了教育基礎。當時中國共產黨認識了教育的重要性。學校的正常化直接關係到教師的供需問題。所以，中國共產黨採用了重新對原來的教師進行教育後安排的方法和通過示范學校的成立而培養出教師的兩種方法。但是，早期的教師大部分都是原來的教師，他們被安排到學校。毛澤東對此表示，自從原來的老師掌握學校以來，將會萌發修正資本主義。因此，毛澤東主張通過思想鬥爭實現教育革命。自學生們接受這些內部矛盾後，逐漸變為紅衛兵的極左思想。

並且，這不僅是在學校的問題，因整體中國社會的混亂被加重了。公共關係的基本單位的學校在文化大革命期間中受到了破壞。在文化大革命期間中，到了個人為了繼續活下去甚至連家人也當做敵人的地步。在此，筆者有了文化大革命結束後中國社會是否得到治愈的疑問。

1976年發表的文化大革命的終結宣言是爲了向新中國前進的。不過，文化大革命成了忌諱的話題。這只不過隱藏了就像過去10年間完全沒有發生任何事地被縫合的現代中國社會的以人爲本的網絡如何受到破壞。本論文中，打算對沒有露出的現代中國社會的以人爲本的網絡的破壞進行研究。從回到學校的教師與學生的關係可以看出詳細內容。當時教師會分爲爲了重新樹立已被倒塌的師道尊嚴而全力以撲的教師和擔憂着不知何時再次開始而不能積極行動的教師。當時學生們的情況也相同。以紅衛兵活動的人將此時期回想爲最佳或最壞的時期。

另外，對於紅衛兵的研究資料到目前爲止只公開了一部分。因此，筆者要利用小說、自傳等資料，對中國“普通人”對此的看法進行再解釋。尤其，在文化大革命結束後，出現的傷痕文學表現出當時普通人對文化大革命的看法。